

文대통령 “뚜벅뚜벅 앞으로 갈 것”

“경제 성장, 외교 노력에 좌우...외교 중요성에 관심 가져달라” “많은 국민 함께하도록 묻고 듣고 수용해 새 대한민국 만들 것”

뉴질랜드 국민 방문 일정을 끝으로 5박 8일간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순방과 관련해 “8일간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방을 마쳤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대외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협의와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외교”라며 “한반도 평화, 경제성장은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아왔듯, 국내 문제와 외교는 결코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다”며 “세계의 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

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뉴질랜드 방문 일정과 관련 “뉴질랜드 재선다 아던 총리와 ‘사람중심’의 가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다”며 “과학기술, 방산 분야 등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인적교류의 확대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질랜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 양국의 우호협

력 발전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펼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동포들과의 만남은 늘 힘이 된다”며 “체코, 아르헨티나에서 그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을 보았다. 뉴질랜드에서는 비바람 속에서 저를 환영해줬다. 정이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한반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도 많은 격려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터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명균 “北 핵활동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 사실”

“비핵화에 결정적 장애될 우려할 만한 활동은 아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정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언론이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도하고 있다

평화당 “이해찬 ‘베트남 女 결혼’ 발언, 물이해 보여줘”

“다문화가정 모두에 대한 모욕”

민주평화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물이해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베트남 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다문화가정 모두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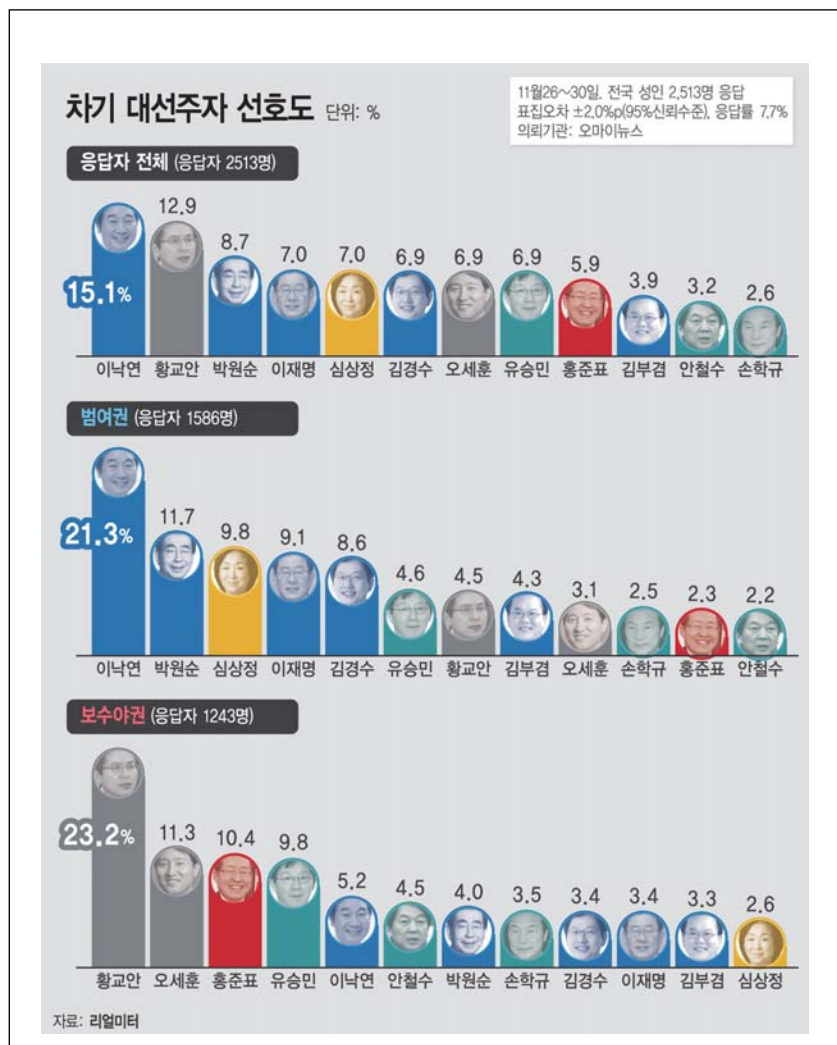
김 대변인은 “이 발언은 30여만 가구에 이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들을 인종과 출신국가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치인으로서 절대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구들이 출신국가 때문에 은연중 차별 받는다면 훗날혁명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매우 편협하고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트남 고위 관리의 면전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상 결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 앞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차기 대선주자, 이낙연·황교안 양강구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26~30일 오피니우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3명(표본오차 ±2.0%p/95%신뢰수준, 응답률 7.7%)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 총리가 15.1%로 1위에 올랐고 4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9%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8.7%), 이재명 경기지사·심상정 정의당 의원(7.0%), 김경수 경남지사(6.9%), 오세훈 전 서울시장·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6.9%),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5.9%),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3.7%),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3.2%),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6%) 순이었다. 선호 후보 없음은 9.0%, ‘모름·무응답’은 4.2%였다.

리얼미터는 여야 정치인 12명을 자체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사가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총리는 지역별로 광주·전라(29.3%)와 경기·인천(16.0%), 서울(15.6%), 대전·세종·충청(14.2%), 연령별로는 30대(18.7%)와 40대(18.2%),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27.9%)과 민주평화당 지지층(23.0%),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1.7%)과 중도층(16.6%)에서 1위를 기록했다.

황 전 총리는 지역별로 대구·경북(21.4%)과 강원(18.0%), 부산·울산·경남(13.6%),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0.5%)과 50대(17.2%),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35.0%),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5.3%)에서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보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86명, ±2.5%p)으로만 보면 이 총리가 21.3%를 기록, 다른 주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로 조사됐다. 박 시장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9.8%), 이재명 지사(9.1%), 김경수 지사(8.6%), 유승민 전 대표(4.6%), 황 전 총리, 김부겸 장관(4.3%), 오세훈 전 시장(3.1%), 손학규 대표(2.5%), 안철수 위원장(2.2%) 순으로 집계됐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